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고, 믿음으로 그 영생 안개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중만한 부활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둠이 물러가고 여명이 밝아오는 그 시간,
돌무덤 앞에 드리운 새벽의 차가운 공기는 무겁고도 엄숙했으나,
그 안에서 일어난 기적은
하늘과 땅을 뒤흔들 만큼 경이로웠습니다.
천사의 빛난 모습이 무덤을 비추었고,
주님은 차디찬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부활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은 단순한 기독교의 절기가 아닌 인류 구원의 절대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소망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완성된 절대적 사건이며, 우리의 믿음의 핵심’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결단을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붙잡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만연한 세상에서 부활절은 중

중 단순한 휴일이나 상업화된 축제로 변질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그 장엄했던 부활의 장면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 빈 무덤과 천사들

부활의 첫 증거는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이 본 빈 무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돌은 옮겨져 있었고,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6)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누가복음 24:5).

이 말은 절망을 기쁨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주셨다는 증거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길을 걸으며 말씀을 나누셨고(누가복음 24:13-35), 닫힌 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요한복음 20:19-23). 특히 도마에게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 하셨습니다(요한복음 20:27-29). 부활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입니다.

- 부활의 능력, 그리고 새로운 사망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19-20)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기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살아 있는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초대 교회를 세우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동력이 된 부활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빛과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집부)



김복숙 시인 (산호세한인침례교회 집사)

부활의 찬미

봄 소리에 귀 기울이면
당신은
별이 되고 달이 되고
햇살은 꽃이 되어
세상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새벽녘 돌문을 떨치고 나오신 이여,
텅 빈 자리 스쳐간 생명의 신비는
마음속 숨쉬는 말씀의 연결 고리
저희는 당신 향한 소망 안고
당신 곁에서 있소니
성령으로 씻겨주신 삶의 터전에
평화의 기도로 거듭나게 하소서
은혜의 찬송 올려 퍼지게 하소서

흘리신 보혈 마음 깊이 새기며
부활의 축복 그 영혼을 담아
세계 곳곳에서 리는 은총의 숨결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위로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간절한 환호성 퍼지는 날에
그 울림은 구원의 깃발
창조의 숫자, 일곱 문자
“주 예수 그리스도”

김복숙: 시집 [푸른 세상 키운다]. 제23회 예피포드문학상 수상, 세계언론인협회 주최 신앙도서독후감 수상. 작품: 『해외동포문학전집』, 『세계문학』, 『미주문학』, 『버클리문학』 등 산호세한국학교 교장 역임(CA), 버클리문학협회 회원.



시론 2면 백승철 목사



부활절 특별설교 3면 권혁천 목사



목회대상 4면 광덕근 목사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소령들: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2025 OC교계연합 부활절연합예배

“다시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5장 5절

일시 2025년 4월 20일(주일) 새벽 5시30분
장소 나침반교회 (민경엽목사 시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문의 (714) 909-0933
교협 총무 조진용 목사(바인교회)

미디어협찬
미주복음방송 크리스천헤럴드 CHTV
미주크리스천신문 기독교일보
크리스천비전 사람과사회(People'n Society)

공동주관
OC기독교교회협의회 THE KOREAN CHURCH COUNCIL OF ORANGE COUNTY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 THE CHRISTIAN ELDER'S ASSOCIATION OF ORANGE COUNTY
오렌지카운티 목사회
오렌지카운티한인여성목사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

시론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그후



백승철 목사

(사모하는교회, 시인, 문학평론가)

2025년 4월 4일 금요일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2024 헌나 8> 탄핵 사건을 인용했다. 비상계엄 선포한 날로부터 233일, 대통령 취임 후로는 2년 11개월 만이다. 윤석열은 '주문' 낭독 즉시 대통령 직을 상실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탄핵 인용의 중심을 잡았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현재는 114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국회에 대한 군 경 투입 ▲포고령 발령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등의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 가지 쟁점 모두가 중대한 위헌,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비상계엄이 탄핵 인용으로 결정된 것은 명료한 것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행위가 헌법적 절차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미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자에 갇힌 편승된 시각으로 대한민국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요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최고조, 정점을 찍을 때 2025년 2월 22일 자 시론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화석>을 썼다. 예상대로 바람이 심상치 않았다. 필자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도 <시론>을 읽는 독자가 의외로 많다는 것에 역설적 위안이 되었다. 필자의 이메일로 <시론>에 대한 반박과 충고의 글을 보내온 독자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필자의 <시론>을 영어로 번역 발표 해서 영어권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그만큼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가 심각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혹시 필자가 자의식 중심적 개론에 몰입된 것은 아닌지 곱씹게 살피는 기회도 되었다.

탄핵 인용이 발표되는 순간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반대집회에서 정광훈 목사는 현재 8명 전원일치 인용에 휘청거렸다. 순간 태세 전환이 빛의 속도였다. 4.19정신으로 탄핵 인용에 저항할 것을 확실히 했다. 다음 날 5일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는 국민저항권으로 헌법재판소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오던 비가 잠시 멈춘 사이 "현금 시간 되니까 비도 그치지 않아. 돈이 쪼들니까. 정광훈 목사님 험내시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겼다고, 감사 헌금을 오늘날만큼은 더 드려 주셔야 해." 눈을 의심하고 또 귀를 의심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길가 쓰러져 통로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람에 밀려 사람들에게 밟히고 찢긴 휴지조각이 되었다. "무엇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인가? '헌금'이라는 단어도 구걸하듯 값싸게 느껴 지는 처음이다. 주일예배 설교에 단 몇분 그 사실을 언급했다가 댓글에 필자는 좌파로 낙인찍혔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 숨이 멈추기 전, 월요일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의 분노가 폭발했다. 교회는 다름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 안으로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다. 채찍으로 소, 양을 성전 밖으로 내 몰았으며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냈다. 환전상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앉았다. 폭군처럼 보였다. 만약 신고 받고 경찰이 왔다면 현행법으로 체포되었을 것이다. 기물 파손은 배상 범위를 훌쩍 넘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막11:17).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님이다. 그 집(교회)의 특이성은 '만민'으로 열쇠를 가진 몇몇 사람들만 교회 문을 열고 닫는 폐쇄형이 아니라 동서남북이 열려 있는 공개형 구조이다. 곧 '누구든지' 피부색, 신분, 좌파, 우파, 경상도, 전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하나로' 가능한 것은 집의 소유권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리스도가 그 집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불가능하다.

이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누구든지 그 집으로 들어가면 좌파, 우파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기 때문이다. 교회를 향해 무엇을 기대하는가? 다시 말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기도'이다. '기도'가 없다면 사기다. 마치 '원조 설령당' 집에 들어가 보니 '설령당'은 없고 자장면을 파는 형국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는 아픔, 좌절, 슬픔, 고통, 고난, 환난, 좌파, 우파, 그 어떤 것이라도 품는 향이다. 그 기도의 통로로 하나님의 위로, 힘, 회복, 구원이 확증된 은혜의 눈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믿음의 행위, 성경적 시선으로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귀이다. 그래야 그리스도 마음으로 길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휘어져 굴절되지 않을 것이다.

www.epipodo.com

행복에 관한 조던 피터슨의 오류 그분을 즐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배의 본질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로운 논란을 찾아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새롭게 생긴 논란이 우리를 쫓아오기도 합니다.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지나치게 자주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직업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기 있는 유튜브이자 연설가인 조던 피터슨을 중심으로 시작된 하나의 토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X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나는 아직도 트위터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합니다). 이 특정 X 메시지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백만 건의 조회 수와 3만 건의 '좋아요'를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공감을 얻었습니다. 칭취자 중 상당수가 "이거, 조던 피터슨 씨, 결론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건 기독교 희랍주의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라고 나를 태그했기 때문에 나도 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나는 칭취자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피터슨이 쓴 내용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탱할 무언가를 찾는 것이다"(2024년 11월 12일). 이 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러니 그 숨겨진 맥락 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존 파이퍼 목사님,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조던 피터슨은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에게 행복은 깊고, 지속적인이며, 영혼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에 뿌리를 두고, 또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의하는 행복은 덧없고, 예측 불가능하고, 충동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복이 깊고, 지속적이며, 영혼을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게 아니라 단지 덧없고, 피상적이며, 예측 불가능하고, 충동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그의 진단은 옳습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행복이라고 부르는, 영혼에 결코 결고 만족을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쫓는 절망에서부터 사람들을 구출하자는 것입니다. 그는 실현 불가능한 그 무언가를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 누구도 그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결코 깊은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삶에서 구속이 가능한 하나의 목표로서 보는 게 아니라, 단지 의미성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의미 있는 존재 방식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이 피상적이고 덧없고 또 예측할 수 없다는 그의 견해와 더불어 의미성이라는 단어가 부여하는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나는 기본적으로 그

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부르던 다른 무엇이라고 부르던, 덧없고 예측할 수 없고 충동적이고 피상적인 공허함을 추구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깊은 차원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그렇습니다. 아멘.

다른 접근

지난 50년 동안 나는 피터슨과는 다른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덧없고 예측 불가능하고 충동적이고 피상적이며 (덧붙여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방식에 근거를 둔 행복 추구에 추구해 온 접근 방식을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피터슨의 접근 방식과 다릅니다.

첫째, 나는 삶의 목표로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행복이 깊고 지속적이며 영혼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에 뿌리를 두고 또 사랑으로 확장되는 대상으로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역사적으로 사용된 방식은 단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매우 깊고 풍부합니다. 그렇기에 행복을 제대로 사용할 때 그 단어가 반드시 공허함과 무의함을 의미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성. LA지사: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할렐루야백화점. 다이얼리 | 시인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i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텍사스: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New York · New Jersey. 선교사의 집. 후원: 917-599-3620. 40-22-158st Flushing, NY 11358. Sunnyusany@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사랑교회, 대동장로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세계선교회, 실비치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지역, 은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평강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부활절 특별설교
부활의 증거
 요한복음 12:24

권혁천 목사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 KAPC 48대 총회장)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날이지만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정말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 두 가지 증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풁습니다. 그 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풁고” (마 28:19)

성부와 성자 성령, 그 어느 한 분도 안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래서 반드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전 6:14) 여기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말씀을 들으며 믿을 수 있으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 15:26)

예수님이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셨다는 사실은 그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모델입니다. 씨를 땅에 뿌립니다. 뿌러질 때의 씨는 움직이지도 자라지도 못합니다. 마치 죽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썩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어 돌고 줄기가 세워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 땅에 뿌려진 씨앗과는 전혀 다른 모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마음에 품은 사람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1. 죽는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후에 많은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시게 위해 반드시 하셔야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죽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도 새 생

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 람이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막 8:34)

십자가를 져야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죽습니다. 죽어야 제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선언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었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롬 6:6)

죄를 짓는데 익숙한 몸이 죽어야 다시는 죄에 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엡 4:22)

우리의 못된 옛 습관들과 죄의 성품들을 성령은 벗겨내

십니다. 죽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새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옛 사람이 죽고 나서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2. 다시 산다.

에베소서 말씀 좀 더 읽으면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 4:23-24)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의로운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삽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그림처럼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땅에 뿌려진 죽은 것 같았던 씨앗에서 썩어 돌아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의 씨앗이었는데 열매는 100배 나 많습니다. 처음 땅에 뿌려질 때의 씨앗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무엇

입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상에서의 부활입니다.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두려워 도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 비겁한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두려움이 없이 관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말 한 마디에 수천 명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가 크냐고 다투던 시기심은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을 드러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열망으로 삽니다.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원형경계장에 던져져도, 십자가에 달려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직장도 포기하고 집도 버린 채 땅속에 들어가 평생을 살아도 열망이 없습니다.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육체의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

는 것이 힘이 들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있는 것처럼, 세상에 숨어 이런저런 죄를 매일 반복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없고 세상에서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주일에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부활의 영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이미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옛 사람은 죽었습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벗겨내시는 옛 사람을 돌아서서 슬그머니 다시 주위 임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아직도 두렵고 어색하고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상상도 못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HYOUK@MSN.COM



명준모 위장간내과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Happy Easter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험 풍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

주소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목회단상

곽 목사님, 안녕하세요?



곽덕근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담임)

몇 해 전 나는 한국 방문 중 흥성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점심 먹고 형님은 불일이 있어 먼저 나갔고, 나와 형수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바닷가에 있는 예쁜 카페로 갔습니다. 내가 먼저 카페를 들어섰는데, 갑자기 안쪽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던 남자 두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곽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일걸에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는 바다가 보이는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되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분들이 내가 목사인 것을 어떻게 알지?’ ‘그리고 내가 곽 목사인 것은 또 어떻게 알지?’ 잠시 후에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 형수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형수가 그분들을 돌아보더니 하는 말. “아, 서방님이 형과 비슷해서

형인 줄 알고 인사했나 보네요.” 흥성에서 목회하고 있는 형님과 내가 많이 닮긴 닮았

수인 김형석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

다. 그러나 단 한번도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군요”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마음속



나 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

너는 어머니 쪽 닮았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고 했습니

다. 그러나 단 한번도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군요”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마음속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신 이유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롬 8:29).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대 희랍의 훈련장에는 뛰어난 무사들의 모습을 그린 커다란 그림 밑에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는 말을 써 놓고는 훈련에 힘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하며, 날마다 반복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본받아야 하고, 주님의 기도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도 본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의 선김으로 보여 주신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중에 있는 작은 자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주님의 성숙한 분량에까지 온전히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

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을지는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서로 서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며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vkwak@gmail.com

행복에 관한 조던 피터슨의 오류

(2면에서 계속)

둘째, 나는 의미성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행복이라는 단어만큼이나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악한 사람들이 찾아내는 의미를 내포하는 최악의 공포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사람들이 찾는 의미의 아름다운 것들로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의미라는 개념 자체가 삶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짓밟고 피상적이고 공허한 행복에서 구출하기 위한 내 전략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둔 성경의 권위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렇기에 지난 50년 동안 나의 사역은 단순히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것이 인간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바로 이해하고 반복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진짜 목표: 진짜 행복

내가 찾은 건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시 19:1; 사 43:7). 즉,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여주려고 공유했기 위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주는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가치로 넘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만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전

하고자 하십니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창 1:27).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가치를 반영하고 확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미지의 목적입니다. 이미지는 그 자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과 우리 서로에게 반영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셋째, 아무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움직이지 않았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롬 5:10).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자신의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는 단지 공의(벌하는 것)만 있

는 게 아니라 자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의 벌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갈 3:13).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인간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와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가치를 반영하려는 열정이 다시 일어납니다(고전 6:20; 10:31).

넷째,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자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가 지극히 귀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특히 우리가 고통 받을 때 더 진리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만족,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한다면 그가 실로 귀중하고 건강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고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실제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빌 1:20-23).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특히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그분으로만 만족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안에서, 특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만족하는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피터슨이 말했듯이, 삶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행복, 기쁨, 즐거움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시 37:4), “주 안에서 기뻐하라”(시 32:11),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빌 4:4)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 그의 말은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넘쳐흐릅니다”라고 말합니다(고후 7:4). 그렇기에 모든 것의 끝과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그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기쁨 속에 반영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당신 앞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당신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시 16:11). 그분을 즐기는 것은 더 큰 무언가를 추구할 때 떨어지는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위대함의 본질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by John Piper, TGC

담임 목사 청빙 공고

한인 동산 장로교회는 미국개혁교단(RCA) 소속으로, 뉴욕주 Westchester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5년에 설립되어 50주년이 된 교회입니다. 2025년 12월 은퇴 예정인 제 2대 담임목사님의 후임으로 사역을 이끌어 주실 제 3대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청빙을 공고합니다.

A. 자격 요건

- 1. 미국 개혁 교단(RCA) 또는 개혁 신앙을 따르는 교단에 소속되신 분
2.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3. 목사 안수 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서 Full-time 목회 경험이 3년 이상 있으신 분
4. 한국어와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5. 미국 내 합법적으로 취업에 걸려 사유가 없으신 분

B. 제출 서류

- 1. 이력서 (신학 교육, 목회 경력 포함 및 본인·가족 사진 첨부)
2. 소개서 (본인 및 가족 소개)
3. 신앙고백서 (목회소명 간증문)
4. 목회 계획서 (장·단기 목회 계획)
5. 증명서 (신학교 졸업증명서(M.Div 포함) 및 목사 안수 증명서)
6. 설교 영상 (최근 1년 내 설교 동영상 3편, 설교 원고 포함)
· 주일 설교: 한국어 2편 또는 한국어 1편 & 영어 1편
· 절기 설교: 한국어 1편
7. 추천서 (목회자 추천서 2부, 추천자가 청빙위원회 공식 이메일로 직접 제출)

C. 유의 사항

- 1. 모든 서류는 한인 동산 장로교회 공식 이메일 (church.nydongsan@gmail.com)로만 접수받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청빙 과정에서만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3.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고, 파일명은 지원자 이름으로 명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빙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5. 서류 접수 마감일: 2025년 5월 31일

한인 동산 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Dongsan Korean Reformed Church of Westchester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https://nydongsan.com
church.nydongsan@gmail.com

담임 목사 청빙

일리노이주 시카고 서브버 지역에 위치한 뉴라이프교회는 복음주의 독립 교회로서 1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1.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분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
3.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4. 미전도 종족 선교 비전이 있으신 분

제출서류(PDF로 제출)

- 1. 이력서(영한, 가족사진 첨부)및 본인소개서(목회 철학, 비전, 은사등)
2. 대학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4. 6개월 이내 설교 2개 동영상 온라인 링크 2개(일반설교, 선교주제의 설교)
5. 추천서 2부(담임 목사나 신학교 교수)

서류 제출 마감 4월 30일 2025

주의 및 안내 사항

- 1. 모든 서류는 오직 청빙에 관해서만 사용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 된 서류는 심사후에 개별 통지하여 전화 면접함
3. 모든 서류는 PDF 첨부 파일로 E-mail: baegnewlife@gmail.com

뉴라이프교회 청빙 위원회

Chicago New Life Church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국제적 HOT POTATO 이슈인 트럼프 무역 및 관세정책은 과연 미국에 필요한가?

지금 세계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쏠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미래는 앞으로 미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선교를 내보내고 있는 국가로서, 경제와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만드는 정책들은 크리스천들이 올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연간 비용이 무려, BETWEEN \$225 BILLION AND \$600 BILLION (2,25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에 달한다.

“위조 제품은 미국의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안,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며, 전 세계 위조 의약품 거래 규모는 \$4.4 BILLION (44억 달러)로 추정되며 치명적인 펜타닐이 함유된 마약의 유통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공산품과 농산물 모두에서 대규모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초래하고, 제조업 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었으며, 중국(CHINA)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힘을 실어주고, 미국의 중산층과 소도시에 피해를 입혔다.

현재의 글로벌 무역 질서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반면,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뒤처지게 하고 있다.

2024년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1조 2,000억 달러(\$1.2 TRILLION)를 넘어섰는데, 이는 이전 행정부가 경제적 위협들을 무시한 결과물로서 나타난 치명적 위기이다.

“MADE IN AMERICA”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이 행정부의 경제 및 국가안보 우선순위다. 대통령의 상호 무역 정책은 아름다운 미국산 자동차, 가전제품 및 기타 상품을 만드는 더 나은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세는 세계 무역의 불공정을 해결하고, 제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며, 미국 국민을 위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지속적인 국제 무역 관행의 불공정성을 조정하고, 만성적인 상품 무역 적자의 균형을 맞추고, 미국으로의 생산 리쇼어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외 무역 파트너에게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역 불균형 해소하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부과하는 불공정한 관세 격차와 비관세 장벽에 맞서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표, 그 이유 들을 다음처럼 발표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국가가 미국을 이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은 승용차 수입품(내연 기관 포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유럽연합은 미국에 (10%)관세를 부과했고, 인도는 70%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네트워킹 스위치 및 라우터의 경우 미국은 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인도는 (10~20%)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브라질(18%)과 인도네시아(30%)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는데 이는 미국이 그들에게 부과한 (2.5%)보다 예탄을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쌀의 경우 미국은 2.7%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인도(80%), 말레이시아 (40%), 터키(31%)라는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다.

사과는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되지만 터키는 (60.3%), 인도는 (50%)씩 관세를 부과해 왔다.

미국의 단순 평균 최혜국 관세율은 3.3%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브라질은(11.2%), 중국(7.5%), 유럽연합(5%), 인도(17%), 베트남(9.4%) 등 주요 무역 파트너의 단순 평균 MFN 관세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에 가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미국 시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 직접 깊이 파헤쳐보지 않는다면, 거의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삶의 균형이 깨지고 경제적 고통이 국가적으로 왜 왔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이며, 주류 언론들이 틀에 짜서 알려주는 자료가 진실인 걸로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경제는 세계를 좌우하기에, 올바른 정통 정보를 통해 더더욱 국가와 차세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이웃에 사는 사람을 전도해 구원받게 하기위해 음식도 있으면 갖다주고 떡이 생기면 주면서 전도의 기회를 보는데 그 이웃은 좀처럼 마음을 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보고 교회 오라고 할까 봐 그런지 부담스러워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인류의 소망이 되는 예수님을 그 분들도 믿어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실비치에서 김 권사

페니실린과 예수

A: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다는 것은 많은 기도와 정성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보통 예수 믿게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12사람 이상의 권면이 있었다는 전도의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오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페니실린 이야기를 소개하며 그 예로 들고자 합니다.

의학계의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입니다. 이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페니실리움이란 성분이 세균과 싸우는 항균 성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세균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실험을 위하여 페트리 접시에 포도상구균을 배양하고 휴가를 갔다 왔는데 와서 보니 실수로 뚜껑을 제대로 닫지 못했습니다. 연구실에 돌아와 보니 어디선가 날아온 괴상한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구균을 전부 먹어 치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균을 다 녹여버렸습니다. 그는 푸른 곰팡이가 생성한 물질을 페니실린이라 부른 후 실험을 거듭한 끝에 2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 페니실린이 여러 종류의 세균을 죽이는 놀라운 항균작용이 있다는 것 2) 이 페니실린이 인간의 백혈구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을 생쥐에 주사하여도 거의 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penicillin, pen 또는 PCN)은 인류 최초의 항생제(antibiotics)가 되었습니다. 이 항생제가 발견됨으로 의학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켰고 인간의 수명은 20년이상 더 연장되는 기적의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페니실린은 제일 먼저 군인들에게 사용되었는데 제 2차 세계대전의 죽어 가던 수 많은 군인들을 살렸고 폐렴으로 죽어가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경을 살렸습니다.

이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에는 50세 이전에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페니실린 덕분에 인간수명이 20년이나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페니실린 주사를 맞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페니실린의 효능에 대해 잘 몰랐고 주사맞으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페니실린은 만병통치약에 가깝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너도 나도 주사를 맞겠다고 병원에 줄을 섰습니다. 페니실린이 세균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심부터 하고 잘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의 항생제인 페니실린보다 더 놀라운 치료제입니다. 페니실린은 인간에게 침투하는 세균들을 죽이고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치료제라면 예수님은 인간에게 침투한 세균보다 더 악하고 강한 죄의 균들을 다 죽이고 인간으로 지옥이란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하는 기적의 치료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기 거부하고 교회를 외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권면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알림

다음 신문은(4월 26일 자) 본지 부활절 정기휴간으로 인해 휴간하오니 이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호 기사는 인터넷 신문에 실시간 게재 됩니다.
www.chpress.net

은혜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은혜 장로 교회는 미국 장로교 교단(PCA) 소속으로 Texas주 Corpus Christi 에 있으며 담임 목사의 사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임 목사를 청빙 하려고 합니다.(자체 교회와 사택 있음)

지원 요건

1.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로 3년 이상 시무하신 분
2.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신 분
3. 이중 언어 (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4. 선교 사역에 비전이 있으신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목회 경력, 가족 사진 첨부)
2. 증명서: 대학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4. 본인 소개 및 가족 소개서
5.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 2편 온라인 링크
6. 추천서 2부(담임 목사 및 신학교 교수)

주의 사항

1. 모든 서류는 청빙에 관해서만 사용 하며 반환치 않습니다.
2. 청빙 결과는 개별 통지합니다.
3. 모든 서류는 첨부 파일로 dongpchoi@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4. 서류 제출 마감은 2025년 5월 31일 까지입니다.

담임목사 청빙

낙원 장로교회
NakWon Presbyterian Church

교회 창립 37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낙원 장로교회 (PCA)에서는 1대 담임 목사가 은퇴함으로써 2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이민교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복음주의 신앙을 회복하여 지역사회와 세계선교를 향한 비전과 다음세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명감이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1. 복음주의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 (M.Div.)하신 분
2. PCA 한인 동부 노회 가입이 가능하신 분
3. 합법적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분
4.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가능한 분
5. 연령: 50세 미만인 분

제출서류

1. 목회 비전 및 자기소개서 (가족 사진 포함)
2. 목사 안수 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3. 추천서 2부 이상
4. 최근 설교 1편 (동영상 링크나 파일)

제출마감

2025년 6월 20일까지

제출처

1. NakWon Presbyterian Church. (낙원 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3364 Susquehanna Rd. Dresher, PA 19025
(215) 646-3887
2. E-mail : nakwonhkc@hotmail.com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청빙이 끝나면 모두 폐기됩니다.

은혜 한인 장로 교회 청빙 위원회
Grac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Corpus Christi

4833 Lavaca Drive Corpus Christi, TX 78411
www.facebook.com/KoreanGraceChurch
713 357 8608, 713 357 8609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황선생의 부활절

새가족반에서 황선생을 만났다. 동료 교사가 인도하여 일생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새 교우였다. 그는 고등학교 물리 교사였다. 성격도 물리적으로 아주 반듯했고 매우 딱딱했다. 자신의 선행을 믿고 살았고 세상의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 불가지론자였다. 교실에서도 예수 믿는 학생들을 꽤나 골탕을 먹이곤 했다고 했다. 장교 출신으로 예비군 교관을 하면서도 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사람은 훈련을 제외시켜 주겠다고 큰소리치던 철저한 불가지론자였다. 그러다

가도 교회에 한 번 나가볼까 하는 맘이 때때로 있었지만, 비이성적인 분야에 자신의 정체성을 무책임하게 포기한다는 과변스런 자기 철학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고 솔직했다. 자신의 삶에 결정적인 문제나 사고가 있지는 않았지만, 결혼생활과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내와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고 매사에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딱히 이 것이 문제라고 꼬집어볼 만한 것이 없었는데도 황선생은 재미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워낙

성품이 꼬장꼬장해서 술 담배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자신의 수양과 선행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는데 재미가 없다고 했다. 무신론을 주장해도 조상으로부터 받아 온 유교의 가르침도 전혀 유익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동료 교사로부터 교회에 가보자는 제안을 받고 새 가족 성경 공부반에까지 오게 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성경의 맨 첫 장 첫 구절을 읽는 순간, 황선생은 완전히 굴복하고 말했다. 무슨 이론의 힘도 아니

었다. 그렇다고 타당한 학설도 아니다.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당당하게 선포 앞에서 만물의 창조주의 압도하는 선언에 일방적으로 압도당하고 말았다.

태초에 만물의 기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 앞에서 황선생은 자신이 눈에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한 먼지 같은 자신의 무가치함 깨닫게 되었다. 평생 길어온 자신의 절대 존재 의식조차도 허무맹랑하게 소나비에 흠러내린 모래성 같이 공허하게 무너져 버렸다. 철저히 무로 되돌려 놓았다고 고백했다. 자신의 정신 세계와 자아의 가치가 대지진으로 벌어진 끊임없는 심연 속으로 함몰되어 버렸다고 솔직했다.

익사 직전의 조난자가 무의식 본능으로 구조원의 옷자락을 조율적인 힘을 다해 붙잡듯이 자신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성경책이 떠나지 않고 한 장 한 장 책갈피를 넘기고 있었다고 한다. 시간 존재조차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순간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비이성적인 신비의 초월적인 사건들이 절대 수공의 사건

으로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다. 자신을 몇 번씩 꼬집어도 보았다고 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면밀히 감찰도 해봤지만 걸 모습은 변함이 없었는데 자신의 속사람은 새로운 점령군이 새로운 군주로 통치하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했다.

결정적인 변화는 새 가족반에서 예수의 부활은 진실인가? 를 다룰 때였다. 황선생은 마치 의식 없는 석고 인간이 되어 앉아 있었다.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났다고... 복음의 폭탄에 직격탄을 맞았다. 자신의 전공인 물리 화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잊어버리고, 생명의 부활 원리와 연결하지 못한채로 살아왔던 과거가 새롭게 변화되는 현재를 만났다...

인류 최대의 사기극으로 치부해 왔던 예수 부활이라는 무제한급의 생명의 폭탄이 황선생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영혼의 세계를 폭발해 버렸던 것이다. 결정적인 항복은? 자신의 전공인 물리 화학의 에너지 보존 제 1 법칙인 ‘질량의 불변 법칙’을 떠올리면서 황선생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고 했다.

황선생은 떨리는 입술로 이렇게 고백했다. ‘목사님! 세상에 가장 미련한 놈이 여기 있습니다. 내 전공 내 학문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여태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잘 알아들 수 없는 물리 화학의 전문 용어들을 줄줄히 속사포로 쏘듯이 얘기하기를 시작했다. ‘질량의 불변법칙’은 어떤 변형 속에서도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과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질과 양을 가지고 최적의 상태만 다시 만들면 얼마든지 재생이 가능합니다. 아! 아! 이것이 부활의 근거이군요!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에... 왜 내가 여태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신명나게 들떠 있었던 황선생의 부활절을 나는 지금까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못한다.

“그는(예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 3:21)

jkim47@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트럼프 압박에 굴복 않는 하버드대 “정부 통제 허용 못해”

미국 하버드대가 약 90억 달러(12조8500억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 중단 압박에도 다양성 정책 폐지를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주요 사립대에 정부 보조금 중단을 압박하며 ‘문화 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대학은 하버드대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22억 달러(3조1400억원) 상당의 보조금 지원을 동결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14일(현지시간) 교내 커뮤니티에 보내는 글에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어떤 정부도 사립대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누구를 입학시키고 고용할 수 있는지, 어떤 연구와 탐구 분야를 추구할 수 있는지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버드대는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버드대나 다른 어떤 사립대도 연방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하버드대에 모든 현직 교수 관련 채용 데이터와 합격자·불합격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속적인 재정 관계를 위해 필요한 9가지 조치’ 실행을 요구했는데, 다양성·평등·포용(DEI) 프로그램 즉각 폐지와 입학 규정 변경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하버드대는 앞서 반유대주의를 막기 위해 시위 주도 학생 징계와 일부 교수 해임 등의 조치를 실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새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버드대 교수 800여명도 반대 성명에 동참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대학들의 DEI 제도와 교내 반유대주의 등을 이유로 아이비리그 대학 등 주요 대학 60곳을 조사하며 연방 연구비 지원을 중단했다. 하버드대에 대해서 약 2억 5600만 달러의 연방 계약과 87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은 앞서 “반유대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해 하버드대의 평판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고 주장했지만, 하버드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반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하버드대의 입장이 발표된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하버드대에 대한 지원 중 6000만 달러의 계약과 함께 보조금 22억 달러를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반도체·의약품... 美, 국가안보 조사 착수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반도체와 의약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대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위한 수순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알루미늄과 철강, 자동차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모든 반도체와 이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는 물론 반도체가 들어간 전자제품까지 포함된다. 의약품 관련 조사는 완제약과 핵심 원료, 백신과 항생제 등이 대상이다. 상무부는 21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미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면서 반도체와 의약품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외했다. 전날 트럼프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을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세전쟁’ 中, 또 보복 “美보잉 항공기 인수 중단하라”

중국 당국이 미국과 관세전쟁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 항공사에 미국 보잉사 항공기 인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북속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지난 주말 대미 관세율을 125%로 올린 이후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국은 자국 항공사에 미국 회사로부터 항공기 관련 장비나 부품 구매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당국은 보잉 항공기를 리스도 도입해 비용 증가에 직면한 항공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중국 항공사는 현재 보잉 737 맥스 기종 약 10대의 인수를 앞두고 있다. 일부는 미국 시애틀 보잉 공장 근처와 중국 저장성 저우산의 최종공정 센터에 대기 중이다. 대금지불이 완료된 일부 기체는 예외적으로 개별 심사를 통해 인수가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잉은 큰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은 향후 20년간 세계 항공기 수요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장으로 2018년 기준 보잉 생산량의 25%가 중국에 인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해 총 1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지난 12일부터 대미 관세율을 125%로 높였다. 중국 항공사들이 미국산 항공기나 부품을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도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日공정위, 독점금지법 위반 구글에 첫 시정 명령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내렸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의 검색 앱만 탑재하도록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 측에 강요했다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일본 공정위가 미국 거대 IT기업들인 GAF(Google, Apple, Facebook, Amazon)를 상대로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구글에게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계약의 취소나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또 독립된 제3자에 의한 5년간의 시정 명령 이행 감시와 공정위 보고도 요구했다.

구글이 공정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명령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사는 어느 검색 앱을 초기 탑재해 어디에 설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구글에 시정 명령 처분안을 보내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늦어도 2020년 7월 이후 6개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 탑재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 앱 ‘크롬’을 함께 탑재하고 이를 첫 화면에 배치하도록 계약했다. 6사의 일본 스마트폰 점유율은 80%에 이른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4곳, 이동통신사 1곳과 광고 수익의 일부를 분배하는 조건으로 경쟁사 검색 앱을 탑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 두 가지 거래가 독점금지법이 금지하는 ‘구속 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일본 스마트폰 검색 시장의 약 79%를 점유하고 있다. 2023년 구글은 일본에서 3070억달러(약 438조 45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검색 광고가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했다.

현대차그룹, 공화당 소속 퍼거슨 전 의원 美 대관 총괄로 영입

현대자동차그룹(HMG)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산업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드류 퍼거슨 전 연방 하원의원을 워싱턴 대관 업무 총괄 직책에 영입했다고 밝혔다.



퍼거슨 전 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임 HMG 워싱턴사무소장(부사장)에 임명돼 미국 정부·의회와 현대차그룹의 소통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퍼거슨 소장은 입법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복잡한 정책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이 미국 정부·정책 결정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적임자로 평가받는다”고 전했다.

퍼거슨 소장은 지난 2017~2024년 조지아주 제3지역구 하원의원을 지냈다. 2019~2023년에는 하원 공화당 수석 부총무로 활동했다.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세제와 무역, 의료 분야 입법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하원의원 재임

전인 2008~2016년에는 기아차 공장이 위치한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시의 시장을 역임했다.

‘노아의 방주’ 찾을까... 튀르키예 아라라트산서 발굴 추진

성경 속 노아의 방주와 관련한 유적을 찾기 위해 튀르키예 아라라트산에서 발굴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튀르키예 일간 사바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노아의 방주 찾기(Noah’s Ark Scan) 고고학 연구팀은 튀르키예 동쪽 아리 지역의 아라라트산 발굴을 검토 중이다. 휴화산인 아라라트산은 정상 해발고도가 5137m로 튀르키예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창세기에 따르면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 동물들과 함께 탄 덕에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다. 성경에는 150일간 이어진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며 이 방주가 ‘아라라트산’에 걸쳐 서게 됐다고 적혀있다.

학계와 교계 일각에서는 그 장소가 튀르키예의 아라라트산이라고 여기는데, 연구팀은 산 남쪽 중턱에 있는 두루프나르 지대에 주목하고 있다. 이 지대는 약 160m 길이의 평평한 타원형 언덕으로 배 아랫부분 모양과 유사하다. 앞선 연구 결과 이곳 흙에서 해양 퇴적물과 연체동물 등 해양생물 성분이 나왔고, 레이더 전파로 지하 깊숙한 곳에 직사각형 구조물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사바흐는 전했다.

연구팀 책임자 앤드류 존스는 “우리가 발견한 구조물이 인공적인 건지 자연 형성된 건지 확인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유적 보존 계획을 세운 뒤 발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 동·남중국해, 한 전쟁 구역으로” 日, 美에 제안...

일본 정부가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묶자는 제안을 미국 측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도 설익은 구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나가타니 겐 방위상이 지난달 30일 도쿄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하며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원시어터’(하나의 전쟁구역)로 보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중국에 맞서 우방국 간 연대를 확대·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은 동중국해,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도 북한의 안보 위협에 더해 전쟁 발발 시 중국을 상대해야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따라서 관련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각국이 공동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선 동·남중국해 등을 개별적인 전장이 아닌 하나로 보고 우호국이 일치단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의 윤리학(15)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D. 제4계명: 안식의 계명

출 20:8-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족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네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 5:12-15,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 안식일의 의미

1) 쉬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 계명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창 3:19)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쉬도

를 하겠다. 이 날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었다(출 20:11).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 계명은 인간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가혹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일이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주셨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막 2:27).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제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의의 입술을 통해 안식일의 의미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셨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와 임의 말씀이니라” (사 58:13-14).

2) 그러나 후기 유대인의 전통에서 많은 종류의 억압적인 (비성경적) 규칙들이 첨가되었다. 이것이 유대교의 전통이 되었다.

안식일에 금지되는 많은 행동들이 “미쉬나” (Mishnah)에 나온다. 미쉬나는 토라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구전으로 전달된 규칙들을 성문화 시킨 것이다 (약 AD 200). 물론 미쉬나는 토

라를 쉽게 설명하였고, 탈무드 형성의 기초가 된다. 탈비 유대교 전통은 미쉬나를 기초로 하여 발전했다.

2. 구약의 안식은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쉼의 모형 (type) 과 그림자 (shadow)이다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골 2:16-17,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3. 신약의 안식일은 (Christian Sabbath Day) 주님이 부활하신 날 (The Lord’s Day) 주일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신약 교회는 매일 (everyday) 모여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Sunday)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행 2:46).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감동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행 20:7). “매 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전 16:2).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 1:20). 신약 교회는 점차적으로 토요일에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교부들의 글을 보면 신약교회 공예배는 주일 (일요일, the Lord’s Day)으로 확증되었다. 순교자 저그틴 (Justin Martyr, AD 100-165)의 <제1 변증서> (First Apology, AD 152)에 이러한 글이 있다. “일요일이라 하는 날은 도시에나 시골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사도들의 회고록 (남긴 글들이나

선지자의 글을 읽느니라(memoirs of the apostles or the writings of the prophets are read)...지도자가 이 좋은 것들을 본받도록 말로 가르치고 권면하느니라. 그런 다음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떡과 포도주와 물을 가지고 (성찬식과 세례식)... 일요일은 우리가 모이는 날이니 (Sunday is the day on which we hold our common assembly), 이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첫날이요, 동시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신약 (새언약) 시대의 예배일 (기독교 안식일)은 구약의 천지 창조의 완성에서, 새 창조의 완성의 날인 예수님의 부활의 날, 곧 구속 사역을 이루신 부활하신 날로 변화되었다.

4. 성도들은 주일 예배일을 은혜롭게 지키기 위하여 세상일을 쉬고 정기적으로 공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공 예배 (Corporate Worship)를 드리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며, 실제로 중요한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한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5).

5.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일에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매일 일상 생활에도 복을 주신다.

엿새 동안 힘써서 일을 하는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복을 주신다. 주일 하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날들이다. 출 20:8-9,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축복의 원천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E. 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 20:12)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 5:16)

1. 부모 공경의 의미: 1-4계명은 하나님의 관계; 5-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공경” (honor)은 존경 (reverence); 순종 (obedience); 감사 (gratefulness)의 의미가 있다 (칼빈).

성경전체가 부모의 공경을 강조한다 (출 21:15, 17; 레 19:3:20:9; 잠 20:20; 30:17).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단순한 인간의 효도보다 더욱 깊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다.

2. 부모 공경의 축복은 “생명이 길며, 이 땅에서 복을 누리다.”

3. 부모 공경은 신약에서도 확증된다. 인간의 죄 가운데 하나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 (롬 1:30) 이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엢 6:1-3) 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합법적인 권위에 복종할 수 있게 만든다(the Lord therefore gradually accustoms us to all lawful)”고 했다 (기독교 강요 2.8.35).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참된 권위가 되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이 된다.

KHL0206@gmail.com

베드로 진서

젊은 시절 미국으로 유학 온 전도사님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위해 야채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한 고객이 체리토마토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아직 일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한국에서는 체리토마토를 본 적이 없었는지라 그는 체리와 토마토를 찾는 줄 알고

여기에 체리가 있고 토마토는 저쪽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니 체리토마토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이 익숙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깔깔대고 웃었지만 아직도 내 머리에 되새겨지면서 오늘에는 그냥 잊기에는 아까운 교훈을 주는 이

체리토마토

야기 같다. 특히 오늘의 신앙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가슴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아닌가? 그것은 체리토마토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름이다. 그런데 체리는 여기 토마토는 저기라 하듯이 교회에서

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존재가 교회 밖을 나가면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지속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좋은 목사와 장로 성도는 이쪽 교회 안에 있고 성질이 못되고 인생을 함부로 사는 자들은 저쪽 가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정과 직장 사업장에 있다면 체리토마토를 몰랐던 전도사만을 나무랄 수는 없겠지. 우리는 단어로서도 분리될 수

없는 체리토마토, 크리스천임을 기억하자.

revpeterk@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4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리스교계장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 821-1112, ebsccross@yahoo.com 603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말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다윗 The wor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2 N 1st street, Pacific Beach WA 98571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360) 907-7271, blescolto@yahoo.com 3806 Country Club NW, Olympia, WA 98502</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891, 267-471-7777, Fax: (610) 222-0892 3280 Morris Rd, Lansdale, PA 19046</p>	<p>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찬양) 오후 1:45 금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410) 461-1236,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on City, MD 21042</p>	<p>보스톤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지, 유년, 종교동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 (703) 581-9236, www.horeanpc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501) 920-9049, www.je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7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8518</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337 706 Wilmer Rd, Hosiern,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오광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213 - 1200 (254) 668 - 3176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laccnacc.org 9424 S. Yo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빌 한인교회)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Jesus Enters the City on a Colt)

종려주일 (棕櫚主日, Palm Sunday) Being Used as a Vessel)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수난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외쳤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마 21:1-11, 막 11:1-11, 눅 19:28-38, 요 12:12-19).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과 번성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올해는 4월 13일이 종려주일이며 14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19일까지는 금식하며 보내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조랑말 같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인술, 용병술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시는 용병술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심(Uses the Humble)

예수님은 나귀 새끼와 같이 보잘 것 없는 것도 불러 쓰시는 분이심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마 21:2-3)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막중한 대속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 도성을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나귀를 가진 다른 사람 같으면 수많은 호위병과 칼과 창으로 무장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군마를 타고 입성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적어도 황금마차를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입성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최소한 영호 밴에 나오는 여섯 마리의 백마가 있는 마차라도 타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볼품없는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체면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용병술입니다. 보잘 것 없는 나귀 새끼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귀하게 쓰임 받았듯이 우리도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쓰임 받은 자의 즐거움(The Joy of

나귀 새끼같이 부족하고 자력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쓰임 받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마 21:6,7) 나귀 새끼가 연약한 동물 중 하나지만 인류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만 모시고 다닌다면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에는 러시모어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정상에 있는 화강암 벽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네 명의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데모도르 루즈벨트, 에이브러햄 링컨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조각된 인물들의 위대한 점은 하나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의 생활 이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였고,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작성자로서 "미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링컨은 가난하여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언제나 성경을 그의 곁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썼으며,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는 집무하는 책상 위에는 늘 성경을 두고 읽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루즈벨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였고,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로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어떠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지 그가 자기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47대까지의 대통령 중에 4명의 대통령이 쓰임 받아 바위에서 새겨놓은 것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귀 새끼처럼 부족한 자들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결과 크게 쓰임 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스펠턴 목사는 "은사를 구두쇠처럼 아끼지 말고, 백만장자가 파산하기를 작정



하듯이 그렇게 은사를 아낌없이 쓰라."라고 말했습니다. 나귀가 쓰임 받은 것은 그의 겸손함 때문입니다.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순결성,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충성됨, 그리고 그의 고백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오로지 주인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나귀 새끼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자력 없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언의 성취(Fulfillment of Prophecy)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마 21:4) 나귀 새끼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진 것이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숙 9:9). 하나님의 예정과 예언을 따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을 소명(召命)이라고 합니다. 나를 창세 전에 택하셔서(엨 1:4)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되게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뜻을 받들어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 모임 이야기 (4) '때에 맞는 말'

지난 3월, LA 근교의 산으로 수양회 가기로 계획하고, 골짜기에 녹지 않고 남아 있을 눈을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아 다들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기 예보는 비가 올 가능성이 40%라고 해서 만약의 경우 기온이 내리고 비가 아닌 눈이 오면 어쩌나 조바심 치게 되었습니다. 출발 예정 사흘 전, 밤새 심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내렸습니다. 눈뜨자마자 산으로 오르는 길의 상황을 알려주는 웹사이트 (socialmountains.com/road)에 들어가 보니 과연 그곳에는 폭설이 내려 일단 주요 도로가 막혔을 뿐 아니라 스노우 체인이나 스노우 타이어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모든 차량에 체인을 달아야 하는 수고로움과 더불어 재정적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빗길에 미숙하다는 남가주 사람들인데 과연 눈길을 헤치고 안전하게 운전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날에 가도 되지만 문제는 환볼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이미 지났고 예약할 때 지급해야 했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오랜 친구 같은 맴버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라도 집을 나뉘지는 못 반가이 받았습니. 어떻게 결정해야 좋을지 상의했지만, 날씨의 열쇠는 온전히 그분 한분이 쥐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 피조물이 머리를 쥐어짜도 결코 대단한 수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그때, '왜 이 날짜에 예약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맥이 좌야 풀리게 됐습니. 기대했던 잔설이 아니고 폭설을 맞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느 때 같으면 '글쎄 말입니다'라고 답했겠지만, 이번엔 바삭 타들어 가는 가슴에 불덩이가 훅 던져지는 느낌이라 서둘러 전화와 끊고는 그룹 연락망에 간절한 기도를 부탁한다는 문자를 먼저 보냈습니.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 매시간 상황을 확인하였습니.

떠나기로 한 바로 전날 아침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상황이 크게 바뀌어 있었습니. 그 동안은 '폭설이후 도로 재정보중인데 곧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써있었는데, 이젠 '도로 파손으로 인해 한주 동안 도로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환볼이 가능할 것인 만큼 서둘러 예약한 곳으로 전화했을 때 그들은 잠시 확인 후에 100%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뼈대할 살림의 한부모 단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 되었습니다.

한시를 놓게 되면서 '말'에 대해 곰곰 생각해보았습니. 말의 위력은 배로 비유하면 작은 '키'와 같다고 합니다. 작은 키로 큰 배를 조정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응원의 말에 의해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있는 것이겠지.

특별히 예민하게 대해야 하는 한부모라는 쉽지 않은 상황의 참가자들에게 든갑하게 반응한 적은 없었는지 심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 임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15:23). '적절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 사과니라 (잠25:11). 등의 말에 관한 말씀이 여럿있습니. 지금껏, 깨닫기도 하고 또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멤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많은 말실수에 대해 회개하였습니. 남은 생애 동안은 성령님이 부여하시는 지혜와 상황에 맞는 말로 서로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hyojungyoo2@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Mexico.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나의 고집을 내려놓기

LA에 여행을 온 사람들이 구경하고 싶은 곳들 중에 할리우드 스타의 거리와 산타모니카 비치...

모니카 비치는 옥빛 바다와 순백의 백사장... 66번의 종착점 표지판이 있습니다.

66번의 종착점 표지판이 있습니다. 미국의 마더 로드(Mother Road)로 불리워진 국도 66번은...

산타모니카 피어를 구경하다 보면 접하게 되는 것이 거리의 예술가들입니다. 거리의 예술가들은 관광객들을 구경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가진 재능들을 선보이며 구경거리도 제공하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쇼를 보여줄테니 먼저 기부금을 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1불, 2불씩을 주어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1불, 2불, 10불을 달라고 요구하고, 20불을 주어야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고 있는 삶과 죄악의 물결이 깊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혜로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셨습니다(마10:16).

yosupbois@gmail.com



시카고지역 한인교회 100년사 출판 감사 예배가 약속의 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사진-크리스천저널)

'시카고 한인교회 100년사' 출판 감사 예배

"하나님의 역사(His Story)이자 우리의 이야기(Our Story)"

시카고지역 한인교회 100년사 출판 감사 예배가 지난 4월 6일 주일 오후 4시 약속의 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목사가 "역사에 묻고 답을 얻으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2부에서는 원종훈 목사의 환영사, 김경수 목사의 출판 경과보고, 그리고 '시카고지역 한인교회 100년사' 영상을 통해 지난 10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았다.

고한인회 회장 최은주,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 김정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광태 목사(시카고지역한인교회 사 편찬위원회 공동위원장, 시카고한인제일감리교회 담임)은 "이번 예배는 단순히 100년사 출판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그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거룩한 자리"라고 밝혔다.

(정리: 박준호 기자)



투스안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 참석자와 투산영락교회 성도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제5회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전도와부흥 강의 및 교회의 실제적 고민 나눔의 장"

제5회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3월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 3박 4일간 아리조나 투산영락교회(장종렬 목사)에서 은혜 가운데 열렸다. 본 목회자 세미나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교단의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총 25개 교회에서 참석했다.

경 속에서도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나아가 할지를 함께 나누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동역하면서 각 교회의 전도와 부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나에 참석 후 교재를 20번 이상 다시 읽고 그대로 실천했다니 부임 당시 4명의 성도가 있던 교회가 2년이 지난 지금은 80명이 넘는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간증했다. 또 남가주어노인교회와 남상관 목사도 작년에 참석한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전도했다니 순수한 새신자를 10명 이상 전도하고 그 가운데 반 이상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간증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사우스베이 목사회 4월 정기예배가 주남세운교회서 열렸다

사우스베이 목사회 4월 정기예배

"예수 안에서 기쁨의 신앙, 기쁨의 본질 놓지 않아야"

사우스베이 목사회(회장: 신태섭 목사) 4월 정기 예배가 지난 4월 9일(수) 오전9시 주남세운교회(신용환 목사)에서 열렸다.

만개 하라(빌 2:12-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용환 목사는 "빌립보서는 모든 메시지가 기쁨으로 포커싱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과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쏟아 부은 사람이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결국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안에서 기쁨의 신앙, 기쁨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랑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모든 사역과 헌신 가운데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바울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기쁨의 신앙 곧 기쁨의 목회요 기쁨의 사역'이었다. 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이요 고난의 기쁨이요 믿음의 기쁨이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목사회 회원들의 사역과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는 12일 350여개의 매트리스를 이재민들에게 나눠줬다.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매트리스 350여개 전달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채규황·법대)가 12일(토) 오전 9시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1인용 3단 매트리스 350여 개

를 나눠주는 행사를 알타데나에 위치한 페어 옥스 버거(Fairoaks Burger)가졌다. 매트리스는 서울대 동문이 운영하

는 회사로부터 기증받아 동창회가 배부한 것이다. 채규황 동창회장은 "피해 이재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모든 분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구호소를 찾은 오세인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매트리스 무상지급을 알게 됐다"며 "집이 전소돼 알함브라의 친척 집에서 결핍살이를 하고 있는데 매트리스가 꼭 필요했다"며 남편과 딸아이를 위해 매트리스 3개를 수령했다. 또한 이재민 에이절 무디 씨는 "이번 재난으로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집이 불에 타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무상으로 매트리스를 받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야디나 살리나스 씨는 "재난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살 곳이 없어서 빨방이 흩어져 살고 있어 이산가족이 되었다. 10살 난 아들이 마루에서 자고 있는데 매트리스를 귀한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동창회는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매트리스를 배포했다. 이날 미처 매트리스를 수령하지 못한 이재민들도 350명이 넘었다. 동창회 측은 이들에게도 매트리스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KFAM 한인가정상담소, 제 6회 자선 골프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KFAM(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엄)이 주최한 제 6회 연례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10일(목) 캘리포니아 인터스트리 힐스 골프 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랑 나눔'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한인 기업 및 지역 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골프대회에는 타이틀 스폰서인 한미은행과 센터스톤을 비롯해 다양한 후

원사가 함께했으며,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속에 총 6만 달러의 후원금이 모금됐다. 캐서린 엄 소장은 "매년 이어지는 이 골프대회를 통해 보여주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는 KFAM 이 사명을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이번에 모인 기금 역시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 확대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정신건강, 가정폭력, 아동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 계층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노해나 홍보담당 (213) 235-4856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제 6회 자선 골프대회에 참석한 KFAM 이사회 멤버들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성지교회, 개척감사예배

뉴욕성지교회(담임 박휘영 목사)는 4월 27일(주일) 오후 4시 30분 개척감사예배를 드린다.
150-17 Nothern Blvd, Flushing NY 11354
▲ 문의: 917-903-5299

뉴욕미션과이어, 시니어 웰빙 개발센터 후원을 위한 음악회

뉴욕미션과이어(음악감독 제시유)는 5월 4일(주일) 오후 5시 뉴욕새신교회(박병준 목사 시무)에서 시니어 웰빙 개발센터 후원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1 Willow St, Roslyn Heights, NY 11577
▲ 문의: 516-343-4703

프라미스교회, 'Promise Got Talent'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가 주최하는 'Promise Got Talent' 본선이 오는 5월 4일(주일) 오후 2시, 예루살렘성전에서 열린다
▲ 문의: [권] 최철환 장로 917-992-3377, [뉴] 이홍주 안수 347-853-0590

남부 뉴저지 세인트폴 장로교회, 정신건강과 교회 컨퍼런스

남부 뉴저지 세인트 폴 장로교회(강다술 목사)는 5월 10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정신 건강과 교회: 돌봄과 예방을 위한 교회의 안내'라는 주제로 프린스턴학교의 브라이언트 M. 커랜드드 체플 학장 겸 학생 생활 부총장인 존 허박사와 고든콘웰신학교의 해밀턴 상담 프로그램 책임자인 카렌 메이슨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컨퍼런스를 연다.
▲ 문의: 856-783-1839

뉴욕교협, 사모님들을 위한 특별 영성 수련회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는 5월 18일(주일)부터 21일(수)까지 3박 4일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목회자의 사모님들을 위한 특별 영성 수련회를 개최한다. 본 수련회의 대상은 교인 20명 이하의 교회 목회자 사모님이며, 등록 방법은 교협 사무실로 전화 메시지를 남기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교협 연락처: 718-279-1414, 주소: 244-97 61st Ave, Little Neck, NY 11362
▲ 문의: 교협 총무 김명옥 목사 718-679-7721



왼쪽 나성근 목사, 오른쪽 문제원 목사

살롱장로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

살롱장로교회는 5월 4일(주일) 오후 5시 나성근 원로목사 추대 및 문제원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를 드린다.
문의: 704-529-0900 (기사제공 살롱장로교회)

피종진 목사 4월 부흥성회

- 흥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k(T.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제245차 해외성회 (245th Overseas Assembly)

31(월) 오전 10시 KAL 인천(8:10) - 몽골(10:50)
31(월) 몽골(Mongolia) Ramada by Wyndham Ulaanbaatar City Center Eranbat the Capital of Mongolia

4월1(화) 몽골(Mongolia) 몽골원주민42교회 연합대부흥성회 주최 기독교인신사(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김영연 목사) 몽골(Mongolia) 몽골한인선교교회(손명목 목사) 몽골(13시) - 인천(15:10) / 인천(18:35) - 일본 도쿄 나리타(21:05) 일본(JAPAN) 東京 국제문화교류협회(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Association MT) 일본(JAPAN) 東京 우에노공원 일본인 야외성회(동경 사명의 교회) 정스대인 선교사, 김태실 선교사 일본(JAPAN) 東京 국제문화교류협회 심령부흥성회 및 제5기 수로식 일본(JAPAN) 도쿄 나리타(9:20) - 인천(11:45)

6(주) 저녁 상주 서문교회(배해광 목사) 010-9354-9001
8(화) 오전 국제신학학술원 세미나 & MT (이사장 강원준 목사)
9(수) 오후 아산 예말아름다운교회 (김중오 목사)
주최: (사)지선협 아산시 복음화 연합성회(대회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사)7000 기도클럽 (이사장 권태일 목사, 대표총제 피종진 목사) 임원 MT
10(목) 정오 스명중영교회(김대성 목사) 010-5276-0441
13(주) 저녁 16시~18시 오산리 최자실국제성경기도원(원장 이영훈 목사)
17(목) 저녁 주회: 느헤미야부흥사회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18(금) 오전 서울 예수님교회(정해영 목사) 010-7751-3121
20(주) 저녁 서울 관악구 성유교회(박요한 목사) 010-2605-1948
21(월) 오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서울노회(노회장 강문순 목사) 107회 정기노회
22(화) 정오 Westminster대학원 대학교(총장 정인찬 박사)
23(수) 저녁 남서울비전교회(최요한 목사) 제8회 세계여성지도자 호주 Sydney Conference 준비기도회
25(금) 오전 신소정권사 시집 발간 감사예배(장소.엘타워2층 인턴테이블)
26(토) 오전 오산 미라클(Miracle International Mission Center) 정립 주년기념대회(대표회장 김우아 목사)
27(주) 저녁 일산 총민교회(임다익 목사) 010-9926-2614
28(월) 오전 KAICAM (사)한국목회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연합회장 송용필 목사)
제51회 목사안수식 장소: 분당할렐루야교회(담임 김승욱 목사)
28(월)~29(화) 서울 위대한약속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www.nscs.or.kr
www.nscs.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9-10호 Fax. 02)4011-7770



뉴욕크리스천 코럴, 제9회 정기연주회 '십자가상의 철언'을 찬양하고 있다

뉴욕크리스천 코럴, 제9회 정기연주회

종려주일에 '십자가상의 철언' 찬양으로 새기다

뉴욕크리스천코럴(지휘자 장효종)은 4월 13일(종려주일) 오후 6시 후러시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십자가상의 철언'을 주제로 제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찬양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종려주일에 맞춰 기획된 연주회는 이민영 목사(뉴욕세광교회)의 기도로 시작되어, 1부 '은혜의 성가'에서는 최기향 지휘자의 지휘로 「감사드린 후 나를 기억하라」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등 감동적인 찬양으로 이어졌다.

2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구성된 「십자가상의 철언」이 연주되었다. 이 작품은 테나·바리톤·소프라노 솔리스트들과 합창단이 함께 깊이 있는 하모니로 말씀 하나하나에 생명력과 메시지를 담았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이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

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감동적으로 선사했다. 특히 "내가 목마르다" 부분은 바리톤 솔로의 절규와 합창단의 절제된 화음이 예수님의 고통을 실감 나게 표현해 큰 울림을 주었다.

장효종 지휘자의 탁월한 리더 아래 2부 연주회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자연스럽고 깊이 있게 전개되었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의 선포와 함께 감격의 정점에 이르렀다.

연주회 말미, 장영아 사무장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였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지는 뜨거운 박수 속에 앵콜 찬양이 이어졌고, 김정호 목사(후러시제일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뉴욕크리스천코럴은 Christian Society 산하의 아마추어 선교 합창단으로,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홍현숙 기자)



뉴욕교협, 2025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제2차 준비기도회 후 사진 촬영했다

뉴욕교협,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제2차 준비기도회

"만선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은혜"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는 4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2025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준비를 위한 제2차 기도회를 가졌다.

예배는 김경열 목사(부활절 준비위원장)의 인도로 시작되었으며, 이지용 목사(제8지역장)의 기도, 박해용 장로(회계)의 성경봉독, 이어 허연행 목사(회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허 목사는 '빈 배에 입한 은혜(눅 5:1-11)'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며, "베드로가 경험한 진정한 축복은 만선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은혜였다. 우리는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준비하며 모였지만, '연합'이라는 말이 종종 형식에 그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베드로의 적당한 순종처럼 우리 믿음도 때로는 적당함에 머물렀다. 이제는 진정한 연합과 깊은 만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한 "부활절새벽연합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합심기도 시간에는 △ 이종명 목사(이단분과위원장)가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위하여 △ 임영건 목사(제5지역장)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위

하여 △ 김영환 목사(제3지역장)가 교협산하 전 교회와 목회자들의 각성을 위하여 기도 인도를 맡았다. 1부 예배는 김홍석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2부 경과보고에서 김경열 목사는 "전쟁의 승리는 전투력이나 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 현재 11개 구역이 모두 구성되었고, 이번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는 뉴욕장로교회와 프라미스교회가 연합으로 드려질 예정"이라고 전하며,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다.

이어, 회장 허연행 목사는 교협의 또 다른 행사로 준비 중인 사모들을 위한 특별 영성 수련회에 대해 "사모님들이 행복해야 목사님이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하며 교회도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교협 임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수련회를 정성껏 준비하고 있다"며 "사모님들이 편안한 침과 영적 재충전을 누리시고, 동역자들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수련회는 5월 18일(주일)부터 21일(수)까지 3박 4일간 진행된다. 이날 모든 순서는 황동의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퀸즈장로교회, 2025 썸머캠프 개최

영성과교육이 어우러진 캠프로 진행 예정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올해 여름 (7/7-8/15)에 새롭게 단장한 2025 여름 썸머캠프를 시작한다. 이번 캠프는 단순한 여름 돌봄 프로그램을 넘어, 영적 성장과 학업 준비를 함께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은 금년 가을 킨더가든부터 9학년에게 적합한 학생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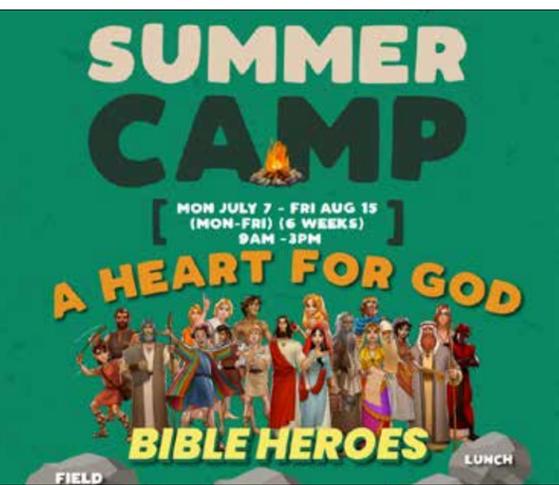
담당 디렉터인 전진영 전도사는 "이번 썸머캠프는 매일 아침 예배로 시작되며, 캠프 중반에는 Mid-Camp Revival(영성 집회)도 예정되어 있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깊은 영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현지 교사들이 각 학년별로 구성된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해, 참가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를 위한 학습 준비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 더불어, 교회 전담 주방장이 직접 준비한 건강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가 매일 제공되어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아이

들이 기대하는 신나는 필드트립이 마련되어 있으며, 매일 오후에는 다양하고 유익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어 학습과 놀이가 균형을 이루는 캠프가 될 예정이다. 또한, 바쁜 부모들을 위해 등하원 라이드 서비스와 애프터케어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전 전도사는 "이번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의미 있는 여름을 보내고, 새 학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등록 및 문의: 퀸즈장로교회 홈페이지(<https://kapcq.org>), 전진영 전도사: 267-476-2042

(김재상 기자)



고 장영춘 목사의 소천 5주기를 맞아, 김성국 목사 설교하고 있다

고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 5주기 추모예배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최고이시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고 장영춘 목사의 소천 5주기를 맞아, 4월 10일(목) 오전 7시15분 퀸즈장로교회 양순관에서 추모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국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허경화 장로 기도와 김성국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롬 4: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다. 그 믿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며 "고 장영춘 목사님도 같은 길을 걸으셨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던 이땅의 땅에서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 하나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최고이시다'라는 고백으

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셨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실천하셨다. 오늘의 퀸즈장로교회는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세워진 열매이다. 이제 그 유산을 우리가 이어가야 할 때"라 말하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으로 전진하자. 그러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걷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모예배 모든 순서는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고 장영춘 목사는 1973년 퀸즈장로교회를 설립하여 섬기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큰 유산을 남겼다.

(홍현숙 기자)



갤러리 개관식과 함께 열린 시상식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온의 빛 프로젝트 호프 미술공모전 시상식

대상-국하영(필리핀) 최우수상-배하린(필리핀), 나하린(케냐)

선교사 자녀를 위한 '가온의 빛' 프로젝트 제1회 호프 미술 공모전 시상식이 12일(토) 오후 4시 가온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공모전의 심사를 맡은 작가 폴 아트 리 박사는 "그림을 심사하면서 각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자녀들의 탁월한 예술적인 재능에 놀랐다. 선교지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은사적인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폴 박사는 "그림의 평가는 참가자의 예술적 재능뿐 아니라 함께 제출된 신앙 고백과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폴 박사는 "적박한 외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들에게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위로와 힘을 실어준 가온갤러리의 공모전이 계속되기를 열망한다. 이 모든 일의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와 영광

을 올려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 대상 고등부 국하영(필리핀)이 제출한 '사랑의 빛', 최우수상 고등부 배하린(필리핀)의 '무덤가 아이', 대학부 나하린(케냐)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한정훈 아나운서 활동하는 선교사 자녀들의 탁월한 예술적인 재능에 놀랐다. 선교지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은사적인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폴 박사는 "그림의 평가는 참가자의 예술적 재능뿐 아니라 함께 제출된 신앙 고백과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폴 박사는 "적박한 외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들에게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위로와 힘을 실어준 가온갤러리의 공모전이 계속되기를 열망한다. 이 모든 일의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와 영광

(박준호 기자)



제74회 국가기도의날 관계자들

제74회 국가기도의날 기도회 열린다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

제74회 국가기도의 날 기도회가 미주성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한기홍 목사)와 총현선교교회, 그리고 남가주한 인음약가협회 공동주관으로 오는 5월1일(목) 오후 7시 총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에서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11시 미주성서화 사무실에서 열렸다.

송정명 박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귀하다. 미국은 청교도신앙으로 토대를 내린 나라이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다. 1952년 미의회에서 국가기도의 날을 제정하고 74번째 지켜지고 있다"며 "88년 레이건 대통령 때 5월 첫째 목요일로 정했고 미주한인교계도 10년 전부터 기도의 날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기도회는 국윤권 목사 인도로 예배로 시작된다.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가 기도하며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 예배 후 이어지는 기도회는 △'미국의 지도자'를 위하여 민중기 목사(총현선교교회 원로/KCMUSA이사장) △'미국의 중요한 현안들을 위하여'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

회)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강태광 목사 △'조국과 차세대'를 위하여' 김태형 목사(ANC온누리교회)가 도전의 말씀을 전한 뒤 합심 기도한다.

이날 강태광 박사는 "차세대가 없다면 미래가 없다.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 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학량 박사는 "2차세계대전 때 기도로 승부를 걸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놀만디상륙작전 때 간절히 기도했으며 승리로 이어졌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 때 적화통일의 위기 속에 초랑교회에서 회개 기도했기에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미국과 한국의 현실을 보게 된다. 뭉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기도회는 100여명 이상의 찬양대가 모여 기도와 찬양이 함께하는 기도회로 진행될 것이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유튜브라이브로 기도회가 송출된다.

(박준호 기자)



모의유엔대회 수상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KAC MUN 학생들, USC 모의유엔대회에서 9개상 수상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이하 "KAC MUN") 학생들이 지난 4월5일과 6일에 걸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에서 개최한 SCMUN 모의유엔대회에 참가하여 총 9개의 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모의유엔대회는 학생들이 국제 문제를 모의로 논의하고 결의안을 작성하며 외교 역량을 연마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19명의 KAC MUN 학생들이 참가해 사전에 배정받은 유엔 회원국을 대표하여 8개 위원회에서 국제적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 부

문에서는 레이첼 최(Rachel Choi)이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를 통해 최우수상을, 소피아 김(Sophia Kim)은 유엔 무역개발기구(UNCTAD), 준변(Joon Byun)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에릭 최(Eric Choi)와 유진 권(Eugene Kwon)은 유엔아동기금(UNICEF) 위원회에서 활약하여 장려상을 수상했고, 격려상(Verbal Commendation)은 스테판 정(Stephen Jung)과 제이미 임(Jamie Lim)에게 돌아갔으며, 레이첼 최(Rachel Choi)에게 시온 이(Sion Lee) 학생은 리서치상을 수상하였다.

KAC MUN 프로그램을 지도하시는 민디 이(Mindy Yi) 선생님은 "학생들이 함께 주어진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역할을 나누어 연습한 노력의 결실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대표는 "한미연합회가 지난 1983년부터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국제 사회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야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스텝들

OC전도회연합회 야유회

오렌지카운티전도회연합회(회장 한성준 집사) 야유회가 12일(토) 오전 10시 랍프B 클럽 리저널 파크에서 열렸다. 이날 야유회는 전도회연합회 회원들의 4월 모임으로 갖게 되

었으며, 바이올라대학교에 재학중인 선교사 자녀 두 명이 함께 이날 야유회를 빛내주었다.

(박준호 기자)

새생명교회 창립 17주년, 교회통합 감사예배 드려

새생명교회(담임 지성은 목사) 창립 17주년 및 그루터기 교회와의 통합감사예배가 지난 4월 6일(주일) 오후 4시에 개최되었다. 지성은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는 조이스 홍 장로가 기도하고 성가대의 특송, 그리고 기성은 목사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눅 19:1-10)'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봉헌기도 시간에는 감리교 원로 목사들로 구성된 '은빛중창단'이 '기도의 시간'이란 찬양을 불렀고 노을재 장로가 두 교회가 통합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통합보고의 시간이 있었다. 이날 예배는 정용치 목사의 축사와 축도로 마쳤다. 한편 새생명교회는 정용치 목사가 담임하고 있던 '그루터기 교회'와 금년부터 통합하기로 하고 그동안 함께 예배를 드려오던 이날 통합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루터기 교회는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의 한인 회중들로 한

인교회가 문을 닫자 수년전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를 담임했던 정용치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하여 그루터기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러나 정용치 목사가 젊은 지성은 목사가 이끄는 새생명교회와의 통합이 두 교회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이라 권고하여 통합에 이르게 되었다.

▲ 문의: (818)489-7651 (정리: 박준호 기자)



지성은 새생명교회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평안교회 창립 50주년 임직식 및 음악회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는 창립 50주년 임직식 및 음악회를 20일(주일) 오후 4시에 거행한다. 임직식은 장로장립, 집사안수, 권사취임식을 하게 되며 음악회는 미주평안교회 연합찬양대와 챔버오케스트라(음악감독: 김영욱)가 공연을 하게 된다.

▲ 문의: (213)381-2202

미주가정선교회 주최 제9회 가정선교세미나

제9회 가정선교세미나가 오는 5월 31일(토)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정선교, 가정문제 해결방안이란 2가지 주제로 세리토스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미주 가정선교회 대표 이재근 목사

▲ 문의: (562)714-0691

LA국제 이스라엘엔퍼런스

LA국제 이스라엘엔퍼런스(대회장 한기홍 목사)가 '내가 속히 오리라(계 22:7)'라는 주제로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714)336-8995, (310)720-2512

미주복음방송 지진피해 돕기 캠페인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오는 4월 11일(금)부터 25일(금)까지, 미안마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2주간의 특별 기금 마련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난 3월 28일, 미안마에서는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약 4천 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발생해 국제사회의 긴급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금액과 상관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문의: (714)484-1190

에브리데이교회 헤세드 장학생 선발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손창민 목사)는 미주 신학생을 대상으로 5명의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 금액은 인당 \$4,000이며, 미주 내 정규 신학교에 재학 중인 풀타임(Full-Time) 신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교회에서 마련한 5박 6일간의 HESED TRIP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장학생들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건강한 미주 교회들과 주요 랜드마크를 탐방하게 되며, 비행기 비용을 포함한 모든 일정 경비는 교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온라인 신청서(구글폼)를 먼저 제출한 후, 필수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필수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지원 신청 (구글폼): <https://forms.gle/KcGT3VppUpeYX6PI8>

▲ 문의: hysungkim@churcheveryday.org

한미연합회, 'NCLC' 참가학생 모집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는 6월16일(월)-20일(금)까지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2025 전미 대학 리더십 컨퍼런스(National College Leadership Conference, 이하 "NCLC")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대학 재학생과 올 가을 입학 예정인 신입생도 포함된다. 웹사이트(<https://kacla.org/national-college-leadership-conference-nclc>)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5월 30일(금). 서류 전형에 합격하면 면접일은 개별 연락받게 된다. 참가비는 숙식을 포함하여 500불. 자세한 것은 웹사이트 참조.

▲ 문의: programs@kacla.org, (213)365-5999



진재혁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창립 52주년 기념 부흥회 성료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예수의 증인 돼야"

어스틴 한인장로교회(담임 목사 김준섭)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지난 4일(금)부터 6일(주일)까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를 주제로 진재혁 목사(케냐 선교사/전 지구총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부흥회를 개최했다. 이윤선 목사 사회와 프라미스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6일(주일) 10시에 시작된 마지막 날 부흥회는 김상보 장로 기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강귀옥 권사 성경봉독으로 이어졌다. 이날 김준섭 목사의 소 개로 단에 오른 진재혁 목사가 '하나님의 중심(마 28:18-20)'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진재혁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라고 말했다. 진 목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

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이 주신 최대의 명령,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대 사명으로 이는 주님이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상대사 명에 동사가 4개가 나온다. 첫째 너희는 가서, 둘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셋째 세례를 베푸는 것, 네 번째 동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인데 네 개의 동사 중 하나의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다. 이속에는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가르침', '모든 시간'이라는 네 가지 '모든'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진재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김치 체험 등 '한류' 타고 전세계로 퍼지는 한국발 이단 바이블백신센터·KWMA 콜로키엄 열고

바이블백신센터(원장 양형주 목사)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강대홍 사무총장)는 1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의 KWMA 세미나실에서 '제5회 KWMA 미션 콜로키엄'을 열고 해외 현장에서 드러난 이단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온라인 줌으로도 진행된 콜로키엄에는 제임스씨 외에도 세계 각 지역 바이블백신센터장인 에스라 김(미국) 신윤희(캐나다) 니콜라 이 류바(몽골) 목사와 박희성(온두라스) 선교사를 비롯해 독일의 변증학자인 시몬 가레트 목사 등이 참석해 한국발 이단으로 인한 각지의 포교 현황을 나눴다.

류바 목사에 따르면 몽골은 전체 인구의 1% 정도인 3만 4000여명이 기독교인인 반면 신천지(1만5000여명), 몰몬교(1만1000여명), 구원파(1만여명) 등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유입된 이단종교에 빠진 신도

만 4만4950명에 이른다. 미국도 신천지 신도가 2019년 4200여명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시기를 틈 타 2023년 785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에스라 김 목사는 "구원파와 박육수 측은 미국에서 한국 음식 체험 행사인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를 내세우며 포교에 활용 중이다"라며 "문제는 이 행사 부스 주변 박육수 측의 이단 교리를 내세운 '마인드교육' 부스도 있다"고 전했다.

종교개혁의 발상지 독일도 일의 변증학자인 시몬 가레트 목사 등이 참석해 한국발 이단으로 인한 각지의 포교 현황을 나눴다.

류바 목사에 따르면 몽골은 전체 인구의 1% 정도인 3만 4000여명이 기독교인인 반면 신천지(1만5000여명), 몰몬교(1만1000여명), 구원파(1만여명) 등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유입된 이단종교에 빠진 신도

하고 있으며 이단 대처 사역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며 "또 신천지에서 겨우 빠져 나오더라도 기성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플로키엄 주강사로 나선 양형주 목사는 "한국 이단이 '한류'라는 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며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선교지에 일어날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막아내는 것 역시 선교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음이라는 진리를 이단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서는 쉴드(SHIELD)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단의 정보를 알리고(Sensitize Awareness) 분별(Help Discern)해 초기 대처(Intervene Early)에 나서며, 이단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구출(Extract)해 회복과 회심(Liberate and Restore)을 이끌며 관련 사역 지도자로 양성(Develop the Local Leaders)하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블백신센터는 이날 콜로키엄 후 KWMA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단 문제에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강대홍 사무총장은 "유럽과 아시아 등지의 정통교회가 통째로 이단 집단의 이름으로 바뀌는 일 많이 일어난다"며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보다 이를 막는 일이 더 중요해졌는데, 각 나라 선교 현장에 한국 이단 세력이 약화하고 현지교회가 이단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와 예언' 출판한 임봉대 총장(헨리아펜젤러대학교)

지난 1월9일 헨리아펜젤러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임봉대 목사가 최근 <역사와 예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지난 3월 27일 만나교회(담임 남강식 목사) 출판기념회에서 임 총장을 만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임봉대 총장

임 총장은 "감리교신학교에 재학 중 수업을 들으면서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예언 서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약학 쪽으로 연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임봉대 총장은 책 출간의 동기를 설명했다.

학부(B.Th)와 신학석사(M.Th)를 감신에서 공부한 임 총장은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대를 한 뒤부터 자신이 공부해온 예언서에 대해 강의를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예언서에 대한 설교도 하게 되었고 이번에 출판된 책 <역사와 예언>은 자신이 연구해온 예언서 연구를 정리한 것이며 책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저술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역사와 예언>은 신학교 학부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

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를 예언자라고 하며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님의 시각으로 왕의 결정을 판단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왕이 해온다면 예언자들이 특별한 할 일은 없었지만 잘못된 결정을 할 때에는 비판을 하며 왕권비판론자가 되기도 했다"고 들려 주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과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길..."

이라며 "개론적인 내용으로 집필을 하게 되었는데, 예언서에 대해 처음 공부하게 되는 신학생이나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평신도분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미리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점성이나 무당을 예언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에서 '예' 자는 '말길 예(預)'로 이해해야 한다"며 "하나님께

그는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곳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앗시리아, 시리아, 모압, 암몬 등인데 고대 근동의 예언자와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고대근동의 왕들은 신적 존재였다. 그래서 왕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일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 시키고 합리화 시켜 왕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예언자들이 했었다. 반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 왕이 있지만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

임 총장은 <역사와 예언>은 "특히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구약의 본문이 신약에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라는 성경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했다"며 "결론적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과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71개 교단 참여 오는 20일 부활절 연합예배 드린다

'회복의 은혜·새 역사 창조' 주제

부활절 연합예배(포스터)가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에서 진행된다. '부활, 회복의 은혜·새 역사 창조'를 주제로 드리는 예배에선 국민 대통령을 위한 성명서도 발표한다.

71개 교단이 참여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준비위·대회장 이영훈 목사)가 주최한 이번 예배는 선교 140주년의 해를 맞아 화합과

연합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7개 도시에서 함께 열린다.

박병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심 총회장의 사회로 시작되는 이날 예배에서는 김종혁 예장합동 총회장이 설교하고 김영걸 예장통합 총회장이 축도한다. 김정석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과 소강석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한다. 예배 중에는 김중주(예장호헌) 김병희(예장보수) 박광철(예장예정) 이상구(그리스도교회협의회) 총회장이 특별기도를 인도한다.

이날 연합예배에서는 선교 140주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호러스 G 언더우드와 헨리 G 아펜젤러 선교사의 후손들이 참석해 감사 메시지를 전한다. 한편 대통령 파면 이후 혼란한 사회의 안정을 바라는 성명서도 발표한다.

준비위는 "국민 통합을 위한 성명서"를 최근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국민 통합의 중심점으로 분열을 넘어 하나된 길을 제시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예정"이라면서 "이제는 끝 모를 갈등과 분열, 망국적 거짓 선동과 편 가르기는 속히 멈추자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교회가 대화와 타협, 협력과 상생의 길을 열겠다는 선언이 담긴다"고 밝혔다.

까지 특새를 진행한다. 이규현 목사는 14일 '십자가와 그 좁은 길'(마 7:13-14)을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새벽집회 문을 열었다. 이 목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승리가 보장된다. 좁은 길의 끝에서 나타날 영광의 순간, 죽는 길에서 사는 길이 열리고 그 끝에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좁은 길을 너그러워 갈 힘을 주신다"며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신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라.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감당할 힘을 주신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문했다.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는 '정금같이 나오리라'란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마귀의 의도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축복하신다"며 "고난 없이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이기고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이 돼라"고 주문했다. 호산나교회는 19일까지 집회를 이어간다.



선교사 수 1980년대 이후 급증했다 2020년 이후 꺾어

한국교회 해외 선교 현황, 양적 성장보다 지속 가능성과 전략이 필요

한국교회 해외 선교는 1913년 조선예수교장로회가 중국 산둥성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영훈 사병순 박태로를 선교사로 선임한 뒤 파송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선교사 파송으로는 최초로 기록됐다.

선교사 파송은 1980년대 들어 급속히 확산했다. 1980년 100여명 수준이던 선교사는 1989년 1000명을 넘어섰고 2002년을 전후해 1만명을 돌파했다. 성장세는 이어졌다. 2009년에는 2만명, 10년 뒤엔 2만8039명까지 가파르게 늘었다. 성장세는 2020년을 기점으로 꺾였다.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제한되고 현지 사역도 중단되면서 선교사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내림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지난달 발표한 '2024 한국선교현황'에 따르면 올해 한국 장기 선교사는 2만 1621명이다. 단기 선교사 516명과 선교단체가 파송한 제3국 국적 선교사 986명을 포함하면 2만3000여명 규모다. 이들은 171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 비중이 높다.

선교사 평균 연령은 53.9세로 고령화가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50대 이상이 무려 69.25%이며 60대 이상도 29.4%를 차지한다. 신규 파송도 50대(32.1%)와 60대(13.3%)가 절반에 가깝다. 반면 29세 이하 선교사는 전체의 3.6%에 불과하다. 은퇴와 사역 중단도 늘고

있다. 지난해 은퇴자는 443명, 사역 중단자는 686명으로 집계됐다. 중단 사유로는 건강 문제와 소명 약화, 사역 부적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국내 이주인 선교 통계도 포함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선교의 지형이 국내로 확장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대부분 교단과 선교단체는 아직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이주인 선교를 위한 제도나 조칙을 갖춘 파송 단체는 19.1%에 그쳤다.

KWMA는 올해 과제로 '고령화와 은퇴 대응' '후속 세대 선교 헌신 확보' '국내 이주인 사역을 포함한 사역 재정비'를 제시했다. 홍현철 한국선교연구원 원장은 "지금은 선교 체질을 바꾸는 시점"이라며 "양적 성장보다 지속 가능성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대홍 KWMA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선교지를 개척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전형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이미 세계 곳곳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현지인의 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이며 국내 이주인 사역 역시 앞으로 한국교회가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갈 영역"이라고 조언했다.



부산·경남 교회들, 부활절 특별새벽집회로 고난주간 동행

새벽을 깨우는 십자가의 기도...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부활의 소망

십자가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부산과 경남의 새벽을 깨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2025 부활절 특별새벽집회'가 고난주간인 14일부터 부산·경남 지역 주요 교회에서 일제히 열렸다. 이번 주내내 이어지는 거룩한 여정에서 성도들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긴다.

부산의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 호산나교회(유진소 목사), 포도원교회(김문훈 목사)를 비롯해 경남 김해중앙교회(강동명 목사) 김해제일교회(김신일 목사)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이른 새벽, 말씀과 기도도로 하나가 되고 있다. 각 교회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신비' '보혈의 능력' 등을 주제로 예수의 마지막 발자취와 그 희생에 초점을 맞춰 영적 순례를 시작했다.

수영로교회는 '십자가, 예수 따라가는 길'이란 주제로 18일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15)

제임스 구 목사 (그레이스비전스쿨 대표)



이미지 생성용 AI 도구(AI TOOLS FOR IMAGE CONTENT)의 활용 (1편)



이미지 생성을 위한 AI 도구는 강의, 설교, 예화, 예술, 사진 스타일, 캐릭터, 포스터, 편지 등 다양한 디자인 목적에 맞게 도구를 선택할 수 있다.

ChatGPT 를 사용한 AI 이미지 생성

ChatGPT는 자체적으로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을 실행하지 않고,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OpenAI의 이미지 생성 도구(API)인 DALL-E AI 를 기반으로 하여 결과를 출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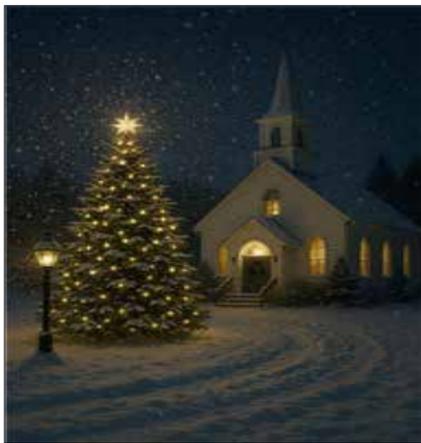
ChatGPT의 이미지 생성 방식은 Text-to-image 방식이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설명(prompt)"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연어 명령만으로 자신의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겨울 눈 내리는 교회 앞의 크리스마스 장면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 ChatGPT 가 아래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

Free 버전의 경우 이미지 생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잘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확대 및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설명(prompt)에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추가 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지 품질에 대해서 실제 사진과 같은 사실적 이미지, 예술 작품과 같은 이미지, 만화풍과 같은 이미지를 추가하여 요청하면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 준다.

예를 들어 "한겨울 눈 내리는 교회 앞의 크리스마스 장면을 실사 이미지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입력을 하는 경우 기존의 이미지에 비해서 스타일이 변경된 이미지를 생성해 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ChatGPT의 이미지 생성 AI 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자연어 기반의 직관적인 이미지 생성 AI 도구이다. 누구나 그림을 그릴 줄 몰라도, 입력창에서 글로 설명하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큰 장점은 고해상도, 감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해 준다. 조명, 분위기, 계절감 등 감정과 분위기까지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이미지 생성해 준다. 또한 다양한 스타일 구현 가능하다. 예를 실사풍(Photorealistic), 수채화풍, 만화풍, 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스타일 지정을 통해서 요구 사항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 준다. 예를 들어 "유화 스타일로 그린 예수 탄생 장면" 혹은 "동화풍으로 예수님이 사계오를 만나는 장면"과 같이 입력 조건에 맞게 이미지를 생성해 준다. 또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창의적으로 구현 가능하다. 따라서 ChatGPT 를 활용한 이



미지 생성은 다양한 목회, 교육, 선교 등의 사역에 활용 가능하다. 설교 슬라이드, 교회 뉴스레터, 주보, 청소년 예배 자료, SNS 콘텐츠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맞춤형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므로 이미지를 통해서 신앙적 메시지의 전달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dr.jameskoo@yahoo.com

매일가정에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yahoo.com

월 성신이 이룬 왕국 (대상 12:23-40) 찬 357장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것은 성신의 역사였습니다. 첫째, 모든 지파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용사들이 하나 되어 나라를 세웠습니다. 둘째, 남은 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신 분도 성령이셨습니다. 셋째, 다윗 형제들이 준비한 잔치에 모두 기쁨으로 참여한 것도 성령의 인

도였습니다. 구속의 유아기였던 시대에도 성령은 사랑과 진리로 교회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연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겸손히 따르며,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아야 합니다.

화 법계를 중심한 삶 (대상 13:1-14) 찬 27장

다윗 왕국이 법계를 모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표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을 믿고(2:6) 다윗이 법계를 옮긴 것은 하나님의 왕도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둘째, 법계가 들어올 때 백성이 기뻐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이 기쁨의 원천임을 나타냅니다.(8) 셋째, 옷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회복되었고, 북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이 진정한 복이며, 그 복을 기쁨으로 누립니다.

수 다윗의 주권신앙(대상 14:1-17) 찬 93장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주권신앙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자기 재주나 심복들의 충성보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그는 더 확신했습니다. 없을 때 얻은 신앙이 있을 때 더욱 더 견고해졌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블레셋과의 전쟁에 서도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소년 시절에 받은 진리를 왕이 된 후에도 변치 않았습니다.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을 더 믿고 따랐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다윗의 권위를 높이셨습니다. 세상이 퍼진 명성과 열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북의 근원이 되리라는 아브라함의 약 속을 전수한 다윗처럼 주권 신앙을 힘쓰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목 말씀 중심한 생활 (대상 15:1-15) 찬 77장

왕궁을 세운 후 법계를 그곳으로 옮겨 율법대로 관리하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말씀 중심한 삶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첫째, 왕궁 중앙에 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기초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상징으로 보인 교회는 그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둘째, 레위 제사장이

메고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일전에 옷사가 죽은 사건을 겨울삼아 율법대로 레위 제사장들이 그것을 맨 것은 말씀이 모든 일의 방법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어떤 인간적 방법도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합니다. 셋째, 선결을 강조했습니다. 말씀 중심은 선결 중심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 자체가 진리이며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금 말씀과 찬양 (대상 15:6-16:6) 찬 31장

법계를 맞이하며 찬양대를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감격의 표현이며, 성령 충만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첫째,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영혼은 진리를 보고 찬송하게 됩니다. 둘째, 성령의 조명으로 이미 받은 복을 깨달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내 것이

되 있음을 알 때 참된 만족과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셋째, 형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웃과 가족을 위해 복을 비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미같은 조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토 하나님 중심한 삶 (대상 16:7-36) 찬 64장

다윗의 감사와 찬양 속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주의 얼굴은 은혜와 평강의 상징이며,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 언약에

따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셋째, 헌신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예수다시 사셨네!

뉴욕그레이트넥교회

담임목사: 양민석

715 Northern Bl.,
Great Neck, NY, 11021

Tel. (516)466-8063

뉴욕동원교회

담임목사: 박희근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Tel. (718)321-9199

뉴욕만나교회

담임목사: 정상철

170-0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Tel. (917)750-817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917)373-3411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154 Old Westbury Rd.
Old Westbury, NY 11568

Tel. (516)387-9940
www.cpcofny.org

뉴욕선교로교회

담임목사: 김경수/박병섭

67-02 Woodside Ave.
Queens, NY 11377

Tel. (718)490-6316
www.lmcony.org

뉴욕성실장로교회

담임목사: 차석희

45-31 220th Place,
Bayside NY 11361

Tel. (646)641-2247

뉴욕수정교회

담임목사: 남궁태준

25-67 College Point Blvd,
Flushing, NY 11354

Tel. (718)461-9800

뉴욕심포니교회

담임목사: 신동기

42-70 156th St.
Queens, NY 11355

Tel. (646)339-0196

뉴저지 열린문 교회

담임목사: 허민수 목사

150 Park Ave,
Leonia, NJ 07605

Tel. (201)944-6747

뉴욕좋은교회

담임목사: 정인수

61-72A 223rd Place #23A
Bayside, NY 11364

Tel. (646)238-4883

뉴욕주은혜장로교회

담임목사: 임병순

46-17 160st #1F
Flushing, NY 11358

Tel. (917)767-919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Tel. (718)762-5756
www.hyoshin.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늘기쁜교회

담임목사: 김홍석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Tel. (718)359-0691
www.joyfulchurchny.org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Tel. (303)422-695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 (610)222-0691
Fax. (610)222-0692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Tel.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 (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센터빌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차용호

25454 Gum Spring Rd.
Chantilly, VA 20152

Tel. (703)581-9235
www.koreanpcc.org

시애틀임마누엘장로교회

담임목사: 우광필

17800 36th Ave. W.,
Lynnwood, WA. 98037

Tel. (425)510-8526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45-02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1904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10 Oak Street,
Orangeburg, NY 10962

Tel. (845)359-1458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주안예교회

담임목사: 임영건

170-04 43rd Ave.
Flushing NY 11358

Tel. (631)327-8046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www.kapcq.org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 (253)536-6675
www.tacomacrc.com

프라이스교회

담임목사: 허연행

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Tel. (718)321-7800
www.promise414.com

한인동산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삼

100 Herrmann Pl.
Yonkers, NY 10710

Tel. (914)961-9250
www.nydongsan.com

BETHESDA DENTAL

Sam Lee D.D.S

110 Charlotte Place,
Englewood Cliffs, NJ 07632

Tel. (201)431-9753

CLEAR DENTAL

HYUNKYU E. SONG, D.D.S

140 E 56th St Ste. 1A,
New York, NY 10022

Tel. (212)308-5550

ROCK DENTAL CARE

Yoonil Cha DMD, FICOI

740 Veterans Memorial Hwy #304
Hauppauge, NY 11788

Tel. (631)265-2610
Fax. (631)265-0301

선교의 창 (259)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성 금요일(聖金曜日)

금년 성 금요일은 4/18일이다. 이날은 고난주간 중에서 그 핵심을 이룬다. 누가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이다. 이를 위해 2천년 전, 하나님의 아들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세상에 오셨고 마침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절정을 이룬다. 이로써 성 금요일은 1년 365일 중 하루가 아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찌 이 날을 간과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한다.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체휼(體恤)함이 없다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잠시라도 세상사를 접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과 연합을 시도해야 한다.

1. 성 금요일이 "Good Friday"로 불려진 이유

사람들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어둡고 암울한

신앙에서는 예수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짚어준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비록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준 날이다. 셋째 여러 나라 언어에서 "성스러운 금요일"로 사용되고 있는 보편성 때문이다. 이를테면 독일어: Karfreitag (슬픈 금요일), 스페인어: Viernes Santo (거룩한 금요일), 프랑스어: Vendredi Saint (성스러운 금요일) 등으로 쓰여 지고 있다.

2. 최후의 날을 맞이하신 예수

성 금요일은 예수 죽음의 날이다 (마26:47-27:61, 막14:43-15:47, 눅22:47-23:56, 요18:1-19:42). 예수님은 이날 새벽 한 시경에 가롯 유다가 앞잡이로 끌고 온 군대와 성전 관리, 제사장의 하수들에게 체포되었다. 주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동이 틀 때까지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종교재판을 받으셨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 받은 예수님

채로 사막의 땃별 아래 6시간 매달려 계셨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주님은 오후 3시에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다니(다 이루었다)"라고 외친 뒤 운명하셨다. 이에 지진이 일어나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3. 십자가상의 철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들로서의 효도였다. 제4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마 27, 46). 이것은 영적인 고민이었다. 제5연 "목 마르다"(요 19:28). 이것은 육신적인 고통이었다. 제6연 "다 이루었다"(요 19:30). 이것은 승리의 선언이었다. 제7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눅 23:46). 이것은 최후의 신앙고백이었다. 여기 일곱 마디 중 처음 세 마디는 9시부터 12시 사이에 말씀하셨다. 12시부터 3시까지는 온 땅이 어두워졌고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후 3시가 되자 주

의 사죄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지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십자가 없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가? 사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인간의 반항,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 사이의 필연적인 충돌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죄를 폭로하며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대적하는 것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 주셨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다.

5. 금식을 통한 십자가 고난 묵상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중지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폰, 카톡, 유튜브, 웹툰 등을 절제하는 것도 넓게 보면 금식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금식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더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금식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금식이라는 육체적 고행에 따른 대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1년에 한 번 있는 고난주간이요 성 금요일이지만 고난주간이요 성 금요일이라고도 1차적이며 가장 절제하기 어려운 욕망을 제어하며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맺음 말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은 빛의 신학이다"라고 했다. 그렇다. 십자가 없는 변영신학과 신앙과 우리 인간을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로 연결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4가지를 가리킨다. * 보편적인 것이다. 모든 신앙인은 누구나 지켜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 * 영속적인 것이다. 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삶 속에서 날마다 지켜야 한다. * 의지적인 것이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다. * 고통스러운 것이다. 자기희생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처절한 본을 보여주셨다. 금년 성 금요일이 또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잠시라도 짚을 내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우

성 금요일은 예수께서 인간의 대속제물 되심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삶은 어떤 평화나 생명력도 기대할 수 없다. 성숙한 신앙인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합일된 생을 추구하는 자이다.

이 날을 왜 "Good Friday"라고 부르는가? 여기에는 몇 가지 신학적, 언어적인 전통에서 비롯된다. 첫째 영어의 고어(Old English)에서는 "Good"이 "Holy" (거룩한)의 의미로도 쓰였다. 즉, "Good Friday"는 원래 "Holy Friday"(성스러운 금요일)를 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예수님의 희생이 인류를 위한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기독교

은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끌려갔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지도자와 무리의 압박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프레토리움 뜰 안에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지 면류관을 씌우며 침을 뱉었다. 이어서 성 밖 골고다의 형장까지 매질하며 갔다. 오전 9시경, 언덕에 십자가 형틀이 세워지고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박힌

서 모진 고통을 겪으시며 일곱 마디 밖에 말씀을 하지 않았다. 제1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 이것은 용서의 기도였다. 제2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이것은 파라다이스(낙원)의 약속이었다. 제3연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요 19:26-27). 이것은 아

닙은 나머지 네 마디 말씀을 연거푸 하시고 운명하셨다.

4. 십자가에 대한 존 스토틀

(John R.W.Stott)목사의 해석

십자가는 기독교의 낱아 버린 전통적 문양이 아니다. 이는 신앙의 본질이요 하나님께

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었건만 정작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속담에 "벼룩도 낫짜이 있다"고 했다. 작은 벼룩조차 낫짜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연치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세상에 매이고 바쁘다 해도 성 금요일 만큼은

리가 하나님 백성 된 도리요 의무에서라기보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새롭게 해방되기 위해서이다. 부활의 환희와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 만큼 비례해서 나타난다. 한델의 메시아를 입술로만 찬양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는가?

Jrsong007@hanmail.net

선교편지

미얀마 지진을 바라보며...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대영 지부장 (기아대책 미얀마 지부)

이제 지진이 발생한 지 1주일 되었습니다. 저희는 긴급구호 대응을 시작하고 나서, 하루하루 다양한 재난 상황의 변수에 대처하며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긴급구호만달레이팀은 만달레이에서 4일 정도 지내다가 지속되는 여진으로 건물 안에서 잠을 자기 어려운 상황과 방치된 시신들로 인해 예상되는 전염병 문제, 50도에 달하는 더위,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임시 사무실 겸 숙소를 만달레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핀우린이라는 도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이레의 도우심으로 적합한 장소를 잘 마련하였고, 어제(3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휴식을 취하고 업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여진도 적고, 해발고도 1,300m 고지여서 날씨가 시원한 편이어서 구호활동 후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합니다. 물류를 보관할 충분한 공간이 있어 활동에도 적합하고요. 앞으로는 매일 오전 회의 후 만달레이로 이동해서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1. 미얀마 물품수급과 배분이 잘되도록

진앙지 인근 피해지역인 만달레이에서는 한국본부에서 급파한 인도적 지원팀 간사들과 미얀마지부 소속 기대봉사단, 현지직원들이 힘을 합쳐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간에는 만달레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을 조금씩 수급해서 구호 물품을 나눠줬지만, 만달레이에서 구하지 못하는 물품과 대량구매가 필요한 품목들을 양곤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조달하여, 오늘(4일) 만달레이로 이송하여, 내일(5일)부터 배분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만달레이와 양곤에서 구호물품을 수급해 나눠주게 될 텐데, 미얀마가 평소에도 물품수급이 쉽지 않고 대량수급은 더 어려운 편이라 이 과정을 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수천 만원 상당의 물품을 운송하고 보관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안전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평안하

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여름 캠프와 구호활동이 잘되도록

진앙지에서 떨어져 있지만 수만 가구가 침수되고 무너진(

현재까지 3차에 걸쳐 2,000가정 정도를 지원하였고, 지속적으로 구호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나웅쉐아 동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여름 캠프를 포함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던터라 구호활동과

3. 지속적인 후원을 위한 후원금이 이어지도록

한국에서 미얀마 지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편이라 미얀마 구호활동에 대한 모금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이재민들이 "도와달라, 살려

지진이 발생한 지 48시간이 되기 전에 자체 긴급구호사업비로 10만 불을 투입을 결정하고 구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후원들과 함께 더 많은 미얀마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후원처들이 있는데, 잘 모금이 성사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미얀마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진구호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얀마 지부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성장시킨 직원들과 조직의 역량이 이때를 위한 인가 싶을 정도로 감사하게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미주기아대책 사무총장 정승호 목사 (703)473-4696/seunghochung1221@gmail.com



전체가구의 70~80%)것으로 추정되어 최소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는 나웅쉐 인레호수 지역에서는 기아대책 나웅쉐아동센터 스태프들이 지속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

병행하기 위해 교회 성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일상적인 활동과 구호활동을 함께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달라" 탄식처럼 요청하는 소리를 들으며 현장의 절박함을 마주하고 있으면, 저희는 활동을 지속하고 확대하고 싶지만, 모금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기아대책에서는

예수다시 사셨네!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 (714)521-4636

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일철

3523 Johnson St
High Point, NC 27265

Tel. (336)841-8439
www.kpcgnc.com/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홍철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Tel. (213)481-2779
www.srcla.org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Tel. (213)380-9079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www.bkc.org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목사

Tel. (808)542-2922
www.ikccah.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Cell. (213)745-9191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 (323)-737-3009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www.gracemi.com

은혜와 평강교회
담임목사: 곽덕근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el. (818)894-9266
www.gracepeace.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신용환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325-402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 (310)530-8400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c.org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G100
Honolulu HI 96817

Tel. (808)585-1859

예수 부활 하셨네!

2025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 ✧ 오직 은혜입니다!
- ✧ 오직 감사입니다!
- ✧ 오직 순종입니다!

He is Risen!

성화장로교회